



3차 사업 : 지역 사회 개발 및 지역 아동·청소년 사업

작 성 자: 송국관 & 손영미

목 차

- 프롤로그(prologue): 3차 사역으로 의 전환배경
- 사역 및 지역개요 (3차 사역지에 대한...)
- 선교적 이해
- 3차 사역을 통한 궁극적인 지향점
- 3차 사역의 특징 및 자가 점검 사항
- 3차 사역의 영역 및 기준
- 각 마을 및 각 학교 현황
- 3차 사역계획 및 활동 -1)
- 3차 사역계획 및 활동 -2)
- 에필로그(epilogue): 계속되는 고민과 과제

- **프롤로그(prologue): 3차 사역으로 의 전환 배경**

- **에스라 센터에 대한 선 이해**

에스라 센터는 오래전 대략 14,000여평의 넓은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세우고 ‘**축구 및 제자 양육 사역**’을 감당하며 센터 내에 기숙사를 지어 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합숙-양육-훈련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센터**이다.

그러던 중 ‘에스라 센터’주변 마을의 아이들과 센터 내에 함께 거주하는 많은 축구 선수들의 학업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르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역(학교)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유치원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에스라 유치원’을 시작으로 교육 사역(학교)이 진행되었다.

그러하기에 에스라 센터 내의 **교육 사역(유치원, 초등학교)**은 독자적인 영역이 아닌 에스라 센터 중심의 사역(**축구 및 제자 양육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 **‘에스라 센터’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심’의 사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 ◆ 센터의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사역이 진행된다.
- ◆ 사역의 영역과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다.
- ◆ 센터가 제시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사역 색깔에 부합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
- ◆ 정해진 공간 내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 대부분 센터 운영자의 생각과 계획이 센터 전체의 방향성으로 투영된다.
- ◆ 준비된 센터가 있기에 센터에 많은 애착과 투자를 집중한다.

그러나...

1) 센터의 정해진 범위를 넘어 센터 밖을 향해 사역을 전개 하기가 쉽지않다.

- 센터 중심의 사역이 ‘잘되면 잘되기 때문에 ~’ 또는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 오히려 더욱 센터에만 집중하게되는 좁은 생각이 문제
- 센터 안에서의 사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폭넓게 보지못하는 좁은 시야가 문제

2) 센터 준비 및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된다.

- 땅, 건물, 시설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세금과 신축, 증축, 관리 유지 보수비용 발생
- 급여,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학습 기자재 보급 비용발생
- 충분한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운영난 발생

3) 센터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지만 센터 밖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혜택과 관심이 극히 제한적이다.

- 센터 안과 밖의 괴리감 및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 센터를 통한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 소통의 부재로 인해 폐쇄적일 수 있다.

4)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과 폭넓게 소통 및 교류하지 못한다.

5)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센터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적인 전략과 고민과 방법에만 몰두한다.

6) 상호 관계에 있어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일반적이다.

7) 매번 반복되는 프로그램과 시간표 중심의 운영이다 보니 새로운 시도가 매우 제한적이다.

8) 땅, 건물, 시설투자가 늘어갈수록 불필요한 욕심과 현실적인 안주에 마음을 빼앗긴다.

9) 센터 운영자에 과도히 집중되는 리더십과 일방적인 소통은 함께하는 현지인들을 능동적인 일꾼으로 세워가지 못한다.

10) 센터가 중심이 되고 센터 안으로 집중되는 사역 패턴은, 지역이 중심이 되어 밖으로 펼쳐가는 사역 패턴에 비해 통전적 선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

2차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와 고민들 속에서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3차 사역을 진행해야 할까?**” 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동안 2차 사역은 센터 내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이었고 적지않은 시간이 지난 뒤 계획한대로 사역을 이양하였으며, 무엇보다도 **2차 사역의 패턴과 조금은 색깔과 결이 다른 새로운 사역의 패턴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새로운 사역의 현장을 준비하고 그 속으로 다시 나아가는 여정은 많은 설레임도 있지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에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새로운 **현장으로 힘을 다해 달려가고자 한다.**

● 사역 및 지역 개요

항 목	내 용
기 간	2021년 9월 ~
위 치	남쪽으로 28Km 지점 (편도 1시간 10분 소요)
마 을	나싸라 마을에 거주
주 민	라오 몽족 마을 및 라오 룸족 마을
지 역	나싸라 마을 주변에 여러개의 마을이 인접해 있지만 특별히 나싸라 마을 및 동방 마을과 딘텅 마을을 새로운 사역의 거점으로 준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있는 논떼 초등학교, 나싸라 초등학교, 동방 초등학교 및 동방 중·고등학교를 적극적인 사역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지역은 라오 몽족이 유난히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 역	지역 사회 개발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역
내 용	지역 사회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지역 중심, 현장 중심의 사역들을 찾아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과 함께 상생하여 그들의 도약을 힘써 돕는다.
참 고	사역 중인 여러 한국 선생님들과의 연계를 통해 만들어간다.
시 설	현재는 나싸라 마을에 계약한 집 뿐이지만 계약한 집 뒷마당에 작은 집을 하나 짓고, 원래 있었던 집은 19년이 지나 매우 낡고 많이 허름하기에 상황이 되는대로 조금씩 고쳐서 사역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자 한다.
기 타	나싸라 마을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현재는 안식년차 한국에 들어가 있는 어느 선생님의 사역장을 1년간 대신 돌보며, 지역 중심의 사역에 대한 감각과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다. (~ 2022년 6월 까지)

● 선그적 이해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그’이다.

‘선그’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에게 대한 본질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그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그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의 선그”와 “그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선그’는 더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만 설명하지 않는다. 넓게는 이 세상 전체가 선그의 현장이며, 좁게는 자신이 속한 지역을 그의 선그 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1) 우리는 전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선그 활동을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 위임령’을 실행하기 위해

2) 자기 스스로가 현재 자신이 속한 지역과 삶의 영역 속에서 선그적 그로 존재해야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믿의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

● 3차 사역을 통한 궁극적인 지향점

3차 사역은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개발’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역’이다.

이 사역은 곧 “그 지역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며, 살아가며”

그 지역이 곧 “새롭게 개척해 가야할 나의 교구”이고

그 지역민들이 곧 “잠정적 하나님의 일원이 되며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성도요인으로 세워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사역적 활동들을 진행해 갈 것이며 특별히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일들에 집중한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그들과 함께 **자립과 재생산과 선순환구조를 지향**해간다.

이러한 사역적 전개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친밀도를 높이며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상생해가고** 그들 안에 담겨진 꿈과 비전을 새롭게 인식시킴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도약해갈 수 있도록 힘써 조력한다.

● 3차 사역의 특징 및 자가 점검 사항

특징	자가 점검 사항
지역 사회의 이웃이 되는 공동체	참된 이웃에 대한 진정성
	주님과 지역의 필요 찾기
	접촉점 만들기
	이웃을 위한 사역의 진정성
	친밀한 관계형성과 유지
	공동체만의 사역 찾기
헌신적인 섬김과 함께하는 리더십	사역을 위한 철학
	지속적인 헌신과 모범
	섬김 공동체 구축
	세밀한 현장 파악
	지원과 협력
다양한 물적, 인적 자원의 연계	물적, 인적 자원 파악
	성장 가능성 점검
	개선 가능성 점검
	전방위 네트워크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
	포괄적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및 지역민 중심의 재정 운영	재정 운영의 원칙
	근검, 절약
	자립 구조
	선순환 구조
	대안적 사업 시도
지역 공동체 회복	공동체 구성
	공동체의 방향성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
	일꾼 세우기
	성장과 재생산

● 3차 사역의 영역 및 기준

- 1) 반 나싸라, 반 동방, 반 딘뎡 세 개 마을과 논땔 초등학교, 나싸라 초등학교, 동방 초등학교 및 동방 중고등학교 네 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역 전개.
- 2) 소수민족, 취약계층 (편 부모, 조 부모, 미혼모, 고아, 장애 가정, 여성 가정)돌아보기.
- 3) 교육, 구제, 장학, 봉사, 섬김, 나눔, 돌봄, 양육, 재생산.
- 4) 사역에 필요한 인력은 그 지역 내에서 선발 - 훈련 - 실무 배치.
- 5) '프로젝트'성 사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저비용, 고효율 전략.

● 각 마을 및 각 학교 현황

마 을	주 민 현 황
나싸라 마을	590여 가구 (주민 3,600명 이상), 라오 몽족 60%정도
동방 마을	250여 가구 (주민 1,200명 이상), 라오 룸족 100%
딘뎡 마을	주민 2,500명 이상
학교	학교 현황 (학기 중에도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논땔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100명 이상
나싸라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120명 이상
동방 초등학교	교사 및 학생 330명 이상 (유치원 포함)
동방 중고등학교	중학생 541명, 고등학생 304명, 교사 43명

● 3차 사역 계획 및 활동 - 1)

초등 및 청소년 중심으로
초등학교에 어린이 도서 및 교과서 보급
극빈 자녀 도시락 급식 지원
보건 위생 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관련 물품 보급
장학금 지원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미술, 음악, 영어, 한국어, 독서 등등)
공부방 운영 (교육 학습, 활동, 미디어, 특기 교육)
팀 방문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캠프 운영
가정 방문 및 상담활동
청소년 스포츠 동아리 팀 구성 및 운영
학교내 다양한 교육 경연 및 인재발굴 - 음악, 미술, 체육대회, 주제발표, 언어, 달란트 경연 등등
대학 입학 및 구직 활동 지원 - 입학 정보, 주변 방직 의류회사 연결
직업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와 지원 - 컴퓨터, 피아노, 미술, 미용, 목공, 커피 (바리스타), 제빵, 재봉 기술 및 베틀(천짜기)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연결 및 지원 - 현재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한국 선생님들이나 기술을 가진 지역 주민과 연결하여 훈련
청소년 공동체 팀 구성 및 운영 - 공동체 M.T 및 지역 사회를 향한 공동체 활동 - 청소년 라이프 스킬 교육, 교사 교육, 일꾼 양성.
샘터 공동체 - 예버 공동체, 신○ 공동체 - 찬양, 율동 보급, 마을과 지역 78의 리더도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 건강한 신○인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양육 - 다양한 신○도서 및 Q.T 목상 지도
지역 교육 네트워크 (지역 내 학교들과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 - 미디어 프로그램, 캠프 및 문화 축제, 보충학습. - 방학 시즌 특별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획 및 전시 등

● 3차 사역 계획 및 활동 - 2)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역 실태조사 및 생활 지원 - 생필품 보급, 구제 식량 보급, 기초 의약품 보급 등등
극빈 농가에 생활 자립을 위한 지원 - 병아리 보급, 물고기(치어) 보급, 특용작물 보급 등등
소수 민족 지역 ㄱ층와의 연계 - 선ㄱ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성ㄱ책 및 신ㅇ 도서 보급, 지역 전ㄴ 지원, 절기 행사 지원 등
마을 내 공공 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지원.
취약계층 (편 부모, 조부모, 미혼모, 고아, 장애 가정, 여성 가정)의 생활, 주거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지원
재정 확보 및 자립을 위한 대안적 사업 기획과 시도 -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카페, 마을 농장, 미니 마켓 운영 등등
다리 놓기 프로젝트 또는 취약 가정의 학생 배상 지원 - 그 지역 내에는 현재 ‘동방 중고등학교’ 뿐이기 때문에 반 딘뎡 마을에서는 육로를 이용하여 먼 거리를 돌아올 경우 편도로 최소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며 강을 건너는 배를 이용할 경우 편도 1시간 이내, 오토바이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다면 편도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 그러나 배삐이 부담스러워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 1. 배(바지선) 운영자의 이권 문제. 2. 다리의 길이 및 폭에 따른 예산 문제.

● 에필로그(epilogue): 계속되는 고민과 과제

“혁신성” —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적 접근이 혁신적이며 창의적인가?

“효과성” — 사역을 통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효율성” — 사역 진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예산은 적절한가?

“실행 가능성” — 사역 목표와 사역 방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지속 가능성” —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역인가?

“연계성” —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복○과 연결할 수 있는가?

“재생산 및 성장성” — 사역 이양과 자립 및 선순환구조가 가능한가?

이상의 **7가지 항목**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내 안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ㄱㅎ**’와 ‘**선ㄱ 현장**’의 긴밀한 ‘**파트너 Ship**’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파트너 Ship**’을 만들어가기 위해 간과해서 안될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1). ㄱㅎ와 선ㄱ 현장은 더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 ㄱㅎ와 선ㄱ 현장은 서로 함께 가는 소중한 파트너요, 동반자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2).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소통만 있어서는 안된다.

- 함께 소통하고 공유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균형감있게 살피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3).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 하드 보다는 소프트 즉,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4). 이미 정해진 선ㄱ적 프레임을 가지고 입장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사역의 다양성과 방법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5). 선ㄱ 현장에 누군가를 보낸 것만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내는 자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한다.

6). 선교 현장에 어떤 형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 선교 현장에 시작된 사역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자전 - 자치 - 자립에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7). 선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고민, 아픔과 영적 번 아웃은 선교 현장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 선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이 멤버 케어와 지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영적 재충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8). 교회와 선교 현장을 분리, 독립된 두개의 개체로 구별해서는 안된다.

- 각각의 개체는 곧 하나의 '유기체적 교회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견고한 신앙적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연합하며 상생해야한다.

9). 목회자 중심의 파송 및 사역 패턴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 훈련된 '단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의 사역적 지원도 확대해 가야한다.

10). 훈련된 사람을 타국으로 보내는 일방통행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 여러가지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국내로 유입된 타국민 (유학생, 이주민 노동자, 회사원, 결혼 등등)들을 효과적으로 케어 해줌으로써 지속적인 믿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Mission Bridges'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선교 사명을 받았던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본인의 심장에 박혀있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덧가 지불'과 '영향력'이다. 지금도 헌신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자신들을 위한 필요를 철저히 줄여가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 는 '우리'는 어떠한 선교적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덧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

그 '덧가 지불'은 과연 나의 의를 위한 것인가 ?

아니면... 아버지를 위하고, 영혼들을 위하고, 이 땅을 위하는 일이 되고 있는가 ?

그리고 이러한 '덧가 지불'의 삶을 통해 과연 어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

이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개인의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 가야한다.